

# 中國, 韓國人 商標 직접出願 인정 代理機關 통해...特許出願도 긍정적 검토중

中國은 우리나라에 대해 지난 10월 26일부터 商標出願을 직접 접수해 주기로 했다.

류구수 中國專利代理有限公司사장은 지난 10월 14일 한국의 AIPPI 주최 工業所有權 세미나 참석에 앞서 홍콩에서 발간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韓·中間에 증가하는 무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에 韓國에 사무소를 설치 할 것』이라고 밝히고, 가까운 장래에 한·중간의 외교관계는 수립될 수 없지만 韓國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韓國人으로 하여금 工業所有權 權利와 기술교류 문제를 사회주의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취득하게 할 것이며, 이는 남북통일문제에서 북한과의 시각차이도 좁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류 사장은 中國과 대만간의 상업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기구를 홍콩에 조속히 설치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그후 中國은 韓國人이 직접 出願하기 위해 홍콩소재 중국 전리대리유한공사에 맡겨 놓았던 商標出願을 中國의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산하 商標局이 相互主義原則하에 大韓民國 국민이 직접出願한 商標出願을

접수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전리대리유한공사는 10월 26일 DHL로 中國 商標局에 이들 商標를 접수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리대리유한공

사는 최근 中國의 特許局도 特許出願을 곧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韓國의 特許法律事務所에 알려온 바 있다.

## 美國, 商標法 곧 改正 製品출하前 商標登錄 연장 可能

최근 美國은 기업이 경쟁사로부터 광고를 통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제소할 權利를 확대시키고 製品출하이전이라도 商標를 登錄, 최장 3년까지 保護를 받을 수 있도록 한 新商標法을 마련했다.

KOTRA 해외시장이 최근 보도한바에 따르면 1946년 商標法제정 이후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改正한 이 法案은 지난 10월 19일 美下院을 통과했으며 곧 上院에서 구두표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改正된 新商標法案의 주요내용을 보면, 회사가 製品 또는

서비스의 실제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 1년간 유효한 商品을 登錄, 保護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2년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新商標法에서는 누구든지 자사 또는 타사의 製品과 서비스에 대해 제품의 성질·특성·품질 또는 원산지등을 허위로 광고했을 경우 법원의 제재를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광고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제재조치가 더욱 강화되었다. <☞>

發 刊 案 內	<b>中共工業所有權制度</b>
	규격 : 국판 296면
	편역 : 한국발명특허협회
	가격 : 5,000원